



박인비 '스무번째 키스'

LPGA 호주오픈 우승... 박세리 이어 한국 두번째 통산 20승
1년 11개월만에 투어 정상... 도쿄 올림픽 출전 가능성도 커져

박인비가 16일 호주 로열 애들레이드 골프 클럽에서 열린 호주 오픈 여자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후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박인비(32)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20승 고지에 올랐다. 박인비는 16일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시턴의 로열 애들레이드 골프클럽(파73·6637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ISPS 한타 호주여자오픈(총상금 130만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4개로 1오버파 74타를 쳤다. 최종 합계 14언더파 278타를 기록한 박인비는 2

위 에이미 울슨(미국)을 3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우승 상금 19만5000달러(약 2억3000만원)를 받은 박인비는 2018년 3월 벅크 오브 파운더스컵 이후 1년 11개월 만에 다시 LPGA 투어 정상에 복귀했다. 2008년 6월 US오픈에서 처음 LPGA 투어 우승을 차지한 박인비는 이로써 투어 통산 20승을 달

성, 25승의 박세리(43·은퇴)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LPGA 투어 20승 관문을 돌파했다. 현재 세계 랭킹 17위인 박인비는 이날 우승으로 올해 도쿄 올림픽 출전 가능성도 밝혔다. 도쿄 올림픽에 나가려면 6월 세계 랭킹에서 전체 15위 내에 들고, 한국 선수 중에서는 4위 안에 진입해야 한다. 현재 박인비는 한국 선수 중에서는 고진영(1위), 박성현(2위), 김세영(6위), 이정은(9위), 김효주(12위)에 이어 6번째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인비는 이번 대회에 앞서 "도쿄 올림픽에 나가려면 상반기에 2승 정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약 2년 만에 우승 물꼬를 트면서 올림픽 2연패 가능성을 부풀렸다. 3라운드까지 2위 조아연(20)에 3타 차 선두를 달린 박인비는 첫 홀을 보기로 시작했다. 2018년 3월 우승 이후 준우승만 5번 하며 19승에 오래 머물렀던 박인비로서는 불안한 시작이었다. 게다가 조아연이 3번 홀(파4)에서 먼저 버디를

잡아 박인비를 1타 차로 압박했다. 그러나 박인비 역시 같은 홀 버디로 응수하며 다시 2타 차로 달아났고, 이어 4번 홀(파4) 연속 버디로 간격을 벌리기 시작했다. 조아연은 이후 4, 6, 7번 홀에서 연달아 보기를 적어내며 선두 경쟁에서 밀려났다. 한때 2위에 6타 차로 낙성한 리드를 잡은 박인비는 중반 이후 류위(중국)에게 2타 차로 쫓기기도 했다. 류위가 15번 홀(파5) 버디를 잡고, 박인비는 14번 홀(파4)에서 한 타를 잃으면서 2타 차로 좁혀졌다. 그러나 기세를 올리던 류위가 16, 17, 18번 홀에서 3연속 보기를 제풀에 무너졌고, 박인비는 17번 홀(파5)에서 2위와 3타 차를 만드는 썩기 버디로 승부를 갈랐다. 지난주 박오픈에서도 3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리고도 마지막 날 9타를 잃고 16위로 밀려났던 조아연은 이번 대회에서는 3라운드까지 2위였다가 이날도 4타를 잃고 공동 6위로 내려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연합뉴스

윤성빈 월드컵 8차 '銅'

스켈레톤 세계랭킹 3위로 시즌 마감



한국 남자 스켈레톤을 대표하는 윤성빈(26·강원도청)이 올 시즌 마지막 월드컵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윤성빈은 15일 라트비아 시켈다에서 열린 2019-2020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8차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1·2차 시기 합계 1분 41초15를 기록해 3위에 자리했다. 이로써 윤성빈은 이번 시즌 총 5개의 월드컵 메달(금1 은2 동2)을 획득했다. 또 랭킹포인트 1581점을 쌓아 마르틴스 두쿠르스(1665점·라트비아), 알렉산더 트레티야코프(1603점·러시아)에 이어 세계랭킹 3위로 올 시즌 월드컵을 마쳤다. 김지수(26·강원도청)는 1126점으로 9위, 정승기(21·가톨릭관동대)는 904점으로 12위에 올랐다. 이날 경기에서 윤성빈은 1차 시기서 50초36으로 2위, 2차 시기에서는 50초79의 기록으로 5위에 자리했다. 홈 트랙의 이점을 등에 업은 두쿠르스 형제가 그야말로 완벽한 레이스를 펼쳐 금, 은메달을 나눠 가져갔다. 동생 마르틴스 두쿠르스는 1차 시기에서 50초15, 2차 시기에서 49초94를 기록, 거꾸로 레코드를 세웠다. 1·2차 시기 합계 1분40초09로 형 토마스(합계 1분40초90)를 0.81초 차로 가볍하게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성빈을 비롯한 대표선수들은 독일 알텐베르크로 이동해 이곳에서 21일부터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준비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박진섭 감독 "끈끈해져 왔다... 광주 FC 기대하시라"

태국 전훈 마치고 국내 훈련 재개
"광주만의 색깔로 K리그 1 생존"
다음달 1일 홈서 성남과 첫 경기

광주FC의 새로운 시즌을 위한 마지막 담금질이 시작됐다. 광주에 2020시즌은 '새로움'이다. 지난해 K리그2 우승을 이루며 올 시즌 K리그1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광주는 새 전용구장 시대도 맞는다. 올해는 광주의 창단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많은 의미가 담긴 2020시즌을 위해 광주 선수들은 순천과 태국에서 동계훈련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순천에서 진행된 1차 동계훈련에서 체력 강화에 집중했고, 태국에서는 연습 경기 일정 등을 소화하면서 실전 준비에 속도를 냈다. 지난 13일 태국에서 귀국한 선수들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16일 광주에 재소집됐다. 공사 일정으로 아쉽게도 전용구장 개장은 늦어졌지만 선수들은 이날 새로 마련된 클럽하우스에 입소하면서 광주전용구장 시대를 열었다. 태국 동계 훈련을 통해서 2020시즌 밑그림을 그린 박진섭 감독은 광주에서 마지막 육석가리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성남FC와의 개막전 승리를 위한 '필승 전략'도 준비하게 된다. 박 감독은 "이번 훈련을 통해 기존 선수단과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함께 호흡하며 발을 맞췄다. 또 공격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옵션을 실험했다"며 1, 2차 동계훈련을 돌아본 뒤 "지난 시즌 K리그2 우승을 차지했지만, 1부리그에선 다시 도전자의 입장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 동계훈련에서는) 수비적인 부분과 이후 공격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신경을 썼다. 세밀함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많은 공을 들였다"고 언급했다. 박 감독은 태국에서 이번 시즌 구상을 하면서 임민혁과 엄원상에 주목했다. 박 감독은 "우리 선수들 모두가 잘해야 하지만 임민혁과 엄원상의 역할이 크다. 올 시즌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며 두 선수를 '2020시즌 키플레이어'로 꼽았다. 특히 박 감독은 엄원상에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출전으로 체력적인 부분이 걱정돼 휴식을 주려했지만 괜찮다고 하더라"며 "나이는 어리지만 의욕도 있고 자신의 활약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 있을 것이다. 프로 경기에서 기량을 보여주면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우승 감독에서 도전자가 된 박 감독은 광주만의 모습으로 시즌을 이끌어가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광주 FC 박진섭 감독이 태국 아티타이 치앙마이 골프리조트에서 전술훈련을 지도하고 있다. <광주 FC 제공>

박 감독은 "지난 시즌 2부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서 광주만의 끈끈하고

조작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2020시즌을 앞둔 소감을 말했다. 한편 더 높은 무대에서 비상을 꿈꾸는 광주는 오

는 3월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성남FC를 상대로 K리그1 복귀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